

「카미유 클로델」의 스토리텔링 : 조각예술과 영상콘텐츠의 결합 Storytelling in Camille Claudel: Combination of sculpture art and video content

차 영 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요약

여기서는 영화 「카미유 클로델」이 어떻게 예술과 영화의 만남 속에서 조각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예술가의 삶을 복원해내는 서사(narration)의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I. 서론

영화라는 매체는 조각을 입체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학과는 달리 예술품이나 조각을 관객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고, 정지된 글자와 이미지만으로 조각을 설명해야 하는 텍스트와는 달리, 영화는 예술과 예술인, 조각과 조각인을 시간의 추이에 담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등장한 조각 작품의 진가와 함축된 의미를 발견해내고 당시 조각가와 결부된 스토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텔링하는 데에 크게 공헌 한다는 뜻이다. 조각과 영상매체들과의 관계가 맞물리도록 하는 상황에서 감독의 시도는 조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하며 조각을 실존 예술가의 삶과 매치시키는 스토리텔링을 끌어내게 한다. 「카미유 클로델」은 다큐드라마로서 다투어 영화와 조각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건 당연히 보이기도 하지만, 조각 작품 자체가 카미유의 심리적 내면과 삶을 현저하게 반영함으로써 감독은 한층 더 그것을 활용할 당연성을 갖게 된다. 즉, 영화속에 조각이 나타난 작가의 영혼을 담아냄으로써 영화의 진정성은 더욱 부각된다.

II. 본론 - 조각 속에 투영된 스토리텔링

스토리과 연대기를 맞추어 이 영화의 내용과 조각품의 성격을 연결시켜 관찰하면, 카미유의 심리와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그녀의 조각 작품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다. 또 이 조각들이 (카미유) 등장인물로 작동하면서 스토리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에 조각 자체는 그녀의 삶을 증거 하는 영화 스토리텔링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카미유와 로댕의 예술작품은 극 흐름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그들의 만남과 이별, 재회 등 모든 과정이 조각물에 내재화 되어 있고 배우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구현된다.

예를 들어, 로댕과 카미유가 행복했던 시절에 제작된

자서전적인 이미지로서 로댕의 그림 1 「키스」, 카미유의 그림 2 「사쿰달라」(1988)와 「왈츠」같은 조각 이미지는, 등장인물의 감정과 영화의 줄거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스토리텔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체형적 일화들을 마치 연극배우들이 연출한 바와 같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드라마틱한 주제로 형상화하는 내면적 요소들이 조각 속에 그대로 설명되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카미유 클로델의 조각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녀만의 특징인 내면의 아름다움과 감정까지 표현되는, 몸의 언어가 조각 속에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로댕과 결별한 시기에 제작한 가장 자서전적인 작품인 그림 3-4 「중년」 또한 연인들의 감정과 외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드러내며 영상콘텐츠 만큼이나 리얼하게 그들의 삼각관계를 담아내고 있다.



▶▶ 그림 1. 로댕작 「키스」



▶▶ 그림 2. 카미유작 「사쿰달라」



▶▶ 그림 3. 카미유작 「중년」



▶▶ 그림 4. 카미유작 「중년」

로맹과의 결별시기에 제작된 또 다른 작품으로는 「끌로토」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카미유가 로맹과 헤어진 후 드뷔시와 춤을 추고 있지만 끝없이 그녀의 눈길은 어느 노파에게로 이끌리며 심리적인 위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해낸다. 로맹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드뷔시 (Achille-Claude Debussy 1862-1918)를 만나 서로 공감하고 예술가로서도 인정받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촬영과 편집 과정을 통해 드러나면서 비가시성을 극복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공허하게 앉아있는 노파에게 지속적으로 향하며 그녀의 초라한 무의식 세계를 드러낸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결국 천을 찢으며 노파에게 실타래를 엮는 장면으로 이어지며 그림 5 「끌로토」와 그림 6 「페르세우스와 고르고니」를 착수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녀의 온 가족이 파리를 떠난 채 홀로 남는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그림 7 「다나이드」로 인해 이미 사회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카미유의 침체된 심리상태를 노출하는 그림 8 「뜯소문」(Causeuses)도 있다.



▶▶ 그림 5. 「끌로토」



▶▶ 그림 6. 「페르세우스와 고르고니」



▶▶ 그림 7. 「다나이드」



▶▶ 그림 8. 「뜯소문」

이와 같이 영화 스토리와 카미유의 조각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며 조각 작품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감독의 치밀한 심리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조각속의 스토리텔링은 비록 순차적인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지만 심리적인 인과 관계에 따라 이끌리는 대로 기술하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병렬 범 또한 한 사건을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노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생명의 숨결과 감정을 불어넣은, 조각예술 작품을 디지털 영상콘텐츠 예술 속에 재도입하며 직접적이고도 구체성을 지니는 조각의 시각이미지는 배우와 함께 동시적으로 관객의 설득력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왜냐하면, 19세기 조형 예술의 특성은 장식물에 지나지 않던 조각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과 감정을 불어넣어 예술에의 자율성을 부여한 일대의 위대한 업적과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마네킹처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조각과 실존인물이란 배우와의 관계성, 즉, 조각 예술과 영상 콘텐츠 예술의 결합은 관객에게 스토리를 이해하도록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로맹 박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복제한 작품으로 직접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이 영화는, 19세기 조각품을 로맹과 카미유의 삶과 정확히 결부시켜 아름답고 그리고 재미있게 관객을 설득하며 예술품의 가치와 의미를 재성찰하도록 한다. 따라서 조각가의 작품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와, '조각 작품 테마와 조각가의 창작 의도'를 정확히 영화 속 등장인물의 심리와 일치시키는 스토리텔링은, 조각가들의 삶을 재현하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 다큐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다.

III. 결론 - 예술가의 작품과 삶의 복원

이 영화는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되지는 않지만 역사가의 기록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즉, 망각 속으로 사라져가는 예술가 카미유의 삶과 작품의 복원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춘다[1]. 따라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라는 형식 안에 조각과 조각가를 담아 보여줌으로써 최대한 순수 다큐멘터리로서 카미유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복원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즐거움에는 극적 긴장감과 심미적 쾌감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로맹과 카미유의 삶과 작품 제작 경로를 탐구해 나가면 그들이 남긴 조각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조각 속에 남긴 그들의 고뇌와 인생여정에 동참할 수 있다. 「카미유 클로델」은 스크린에 투영된 조각 작품과 그녀의 인생사를 관객에게 재조명하며[2], 영상예술의 스토리텔링에 카미유의 조각 예술이 흡수되었다. 즉, 영화의 스토리가 조각예술에 정확히 매치되어 텔링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도록 한다. 또 인간 정신의 영원성으로 조각의 본질을 승화시킴으로써 조각이라는 콘텐츠 속에 그녀의 생각, 심리, 영혼이 디지털 영상콘텐츠 속에 영원히 남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라는 각기 다른 예술의 장르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여주는 해설서로서, 조각과 영화라는 각각의 장르가 융합되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실존인물 카미유 클로델에 대한 재평가에 기여한 영상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3].

■ 참고 문헌 ■

- [1] Reine-Marie P., Jean-Pierre A., Nicole B., Martine D., Camille Claudel, Martigny [Suisse] : Fondation Pierre Gianadda, 1990.
- [2] Camille Claudel, Correspondance, édition d'Anne R. et Bruno G., Gallimard, Collection Art et Artistes, 2003, et rééditions(Correspondance de Camille Claudel édition revue et augmentée, Gallimard 2008).
- [3] Anne Rivière, L'interdite, Camille Claudel 1864-1943, éd. Tierce, Paris 1983, in Collin Françoise Les Cahiers du GRIF, 1983, N° 28, pp.93-95.
- [4] Antoinette Le Normand-Romain, A. Camille Claudel, Rondin, Le temps remettra tout en place, Paris, Hermann, 2014, Musée Rodin.